

출판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김상수 | 극작가 · 연출가 · 미술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는 경제 제일주의, 경제 획일주의가 전부인 것이 되고 말았다. 사회 전체가 온통 돈바람에 미쳐 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뛰고 걸어가며 돈타령이고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저리 치우고 오직 돈벌이만이 가치의 우선이 되고 말았다.

출판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책을 출판하느냐 마느냐의 우선 고려 대상이다. 출판이 한 시대를 예견하고 정리하며 삶의 다양한 양식을 기획하는 작가적인 신념과 태도의 실현이며, 시대의 정신과 눈으로 실천하는 것이 출판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출판은 돈 버는 수단이고 비즈니스일 뿐이란단다. 그들이 적어낸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서너 줄 읽다보면 글이 더럽고 책을 든 손도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눈도 탁하게 흐려져온다. 삶도 관념도 언어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런데 인기작가의 책이란단다. 내 모국어가 불행해지는 느낌이다. 나무만 함부로 자꾸 베고 있는 형국이다.

내 스튜디오가 있는 산 동네에 멀리 아는 출판사 사장 집이 있다. 베스트셀러를 댕뎀 냈단다. 한 마디로 줄부의 집이다. 부동산투기꾼 정도의 안목으로 화강암 조각이 조악하게 들어찬 성채 같은 그 집은 동네입구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동네를 드나들면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고역이다. 출판

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사 책을 사재기한다고 메스컴에서 떠들었다. 팔리면 '장땡' 이니까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된단다. 여기서 무슨 출판의 정신이나 출판의 가치를 운운하겠는가. 다 출판기획이고 마케팅 방법이라고? 정신의 타락을 볼 뿐이다.

등사판을 미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책을 내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싸구려 베니어 합판 쪼가리로 칸막이를 하고 언 손을 입김질하면서 알뜰하게 교정을 보던 눈 밝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라고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특하면 인용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수십만, 수백만권 베스트셀러를 터뜨린 이들이 절대 아니다. 몇천권의 책이지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게 지식의 체계다. 몇백권의 책도 가치가 있다면 돈이 안된다고 해서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인간은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물건처럼 떠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조잡한 머리로 책 사재기를 하면서 출판을 한다고 품 잡는 출판인들을 퇴장시켜야 한다. 먼저 출판과 유통구조가 정비되어야 하고 공공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출판은 시대의 정신과 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출판사 사장이 한 시대의 기획자고 먼저 한 시대의 '작가' 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저 착한 사람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땅의 현실에 맞서서 출판은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 동시에 좋은 책을 내겠다는 사람들의 뜻에 같이 다가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달에 나는 책을 더 사야겠다(www.kimsangsoo.com).●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운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편집 732 - 1433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